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거듭하셨으며 야곱에게 재삼 언약하셨다.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늘어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긴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복지

세월이 흘러 7년간의 대홍년과 7년간의 대흉년이 오게 되고 7년간의 대흉년 때에 곡간을 지어 곡식을 잘 보관하게 하여 7년간의 흉년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대비한 야곱의 총리대신 요셉에 의하여 야곱과 그의 식솔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애굽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았으나 결국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400년간의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레위지와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생활 40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살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즉장)시대를 거쳐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조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자식



약속

대에서 나라가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열왕기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유다지파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의 후손이라 하여 유대인 즉 유대인(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나라가 조각조각 날 열왕기 시대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바벨론 유수라고 한다. 바벨론 유수는 70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침내 바사(페르시아)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 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흔적도 없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설명 참조)에 의하여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성전 재건의 노력과 평화도 잠시 이스라엘은 로마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축출되어 2000여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독일에서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하여 가나안 땅 즉, 현재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강제 점령하여 1948년 독립국가가 된 이후 중동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의 땅이라는 불굴의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구세주 출현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실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주겠다는 것은 마귀를 속이기 위한 작전임이 구세주의 출현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쟁과 풀이 흐르는 이상향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 불과한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하다.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에덴동산(낙원)을 회복시키겠다는 상징의 말씀으로 풀이해야 한다. 실제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한국 땅에서 1980년 10월 15일자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출현하시어, 영적 가나안 땅인 6,000년 전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시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조희성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2004년 6월 19일 보광사기까지 24년간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덤의 역사인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에덴동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쓸어버려도 그만인 것을 구세주께서는 굳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구세주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고 태양 빛보다 더 밝은 곡산광선을 발하신다고. 그 빛은 죄인에게는 지옥이요 의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지상천국을 바로 한국 소사 땅에 건설하신다고 하셨다.

승리제단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신앙의 터전인 승리제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이사야 65:17)". "다시 밭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요한계시록 22:5)*"

※ 스룹바벨 -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스룹바벨을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는 선지리라는 의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즉 동방의 의인, 스룹바벨, 이긴자, 감람나무, 메시아는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구세주 한 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슬성신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Holy Dew Spirit ?
露の聖神とは何ですか

▶ 성경상의 이슬은 사망의 영 사탄에 해당하는 나라는 자존심을 완전히 이긴 이긴자의 증표이다. 이긴자는 영생의 세상을 열게 되어 있다.

- The Dew is the symbol of Victor who has overcome Ego,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open the gate to Immortality.
- 聖書にある露の聖神とは死の靈, 魔鬼である「私という心」に完全に勝った勝利者の證である. 勝利者は永生の世を開くことになっている.

▶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이긴자 메시아가 출현하면 이슬이 그와 함께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슬은 성경상의 감추었던 만나, 불경상의 감로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이 찾았던 전설적인 삼신산의 불로초이다.

- It proclaims that the Advent of Israel(the Messiah), for the Bible has it that "I will be the Dew to Israel"(Hosea 14:5). And it is the very Hidden Manna and the Sweet Dew of Buddhism and the Mysterious Herb of Mount Samshin of the Chinese legend.
- 聖書のホセア書の14章5節には勝利者・メシアが出現すれば露が彼とともに臨むと記されている. 露は聖書に隠されたマナ, 佛典の甘露, そして中國の秦始皇が探した傳説的な三神山の不老草である.

▶ 지금 승리제단에서는 이긴자 구세주 출현 이후 35년 동안 이슬성신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성경 요엘서 2장 30절에는 이슬이 불과 피와 연기 기둥처럼 다양한 형태로 내린다고 하였다.

- Now, here SeungNiJeDan(the Victory Altar), the Holy Dew Spirit has been pouring out for 35 years from Victor Christ. The Dew has various forms; fire, blood and the columns of smoke(Joel 2:30).
- 今, 勝利祭壇では勝利者・救世主が出現された以後, 34年間, 甘露・つゆが引き續き降りている. 聖書のヨエル書2章30節には露が火と血と煙柱のように様々な形で降りると記されている.*

속담 속의 영생학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라는 속담은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죄를 벗고 하나님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호랑이를 잡으려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승리제단(호랑이 굴)에 들어가 봐야 한다. 호랑이 굴이 되는 승리제단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모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도 '인간이 죄인이야' 하면서도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또한 왜 죄를 없애야 하는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사(赦)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는 지도 아는 자가 없다. 성경, 불경, 격암유록 등 모든 경전에는 조목조목 영생(천국)의 비결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종교라는 이름의 단체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죄를 없애고 의인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사람 몸속의 두 개의 신(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이 승리하여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마음의 천

국을 이루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여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그날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으로 하나님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사람의 몸 자체가 완전한 빛으로 화해버리는 불멸체가 된다. 하지만 이 빛은 의인에게만 천국이요, 죄인에게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다. 인류역사 6천년 이래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신학박사나 내로라하는 종교 지도자 등 이 세상에서 훌륭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말씀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다.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갈 때가 있거나 사람이 불멸의 빛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도 없었다. 학문도 없었다고 35년째 구세주 조희성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생'의 호랑이 새끼를 잡기 위해서는 삼구세주가 계시는 승리제단에 들어와야 한다. 복종의 복! 영생의 대복을 주는 승리제단 호랑이 굴로 가서 오시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표준어 제대로 쓰기④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지금까지 봐왔던 용법들을 총망라하여 발췌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 부사**
예) 더우기(X) 더욱이(O) / 깨끗히(X) 깨끗이(O) / 번번히(X) 번번이(O) / 가만이(X) 가만히(O) / 일찌기(X) 일찍이(O) /
- 2. 된소리**
① '-(으)르진대(X)'와 '-(으)르진대(O)'
예) 주인이 취할진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그대와 같이 건강할진대 무엇이 걱정될까?
② '-(을)꺼나(X)'와 '-(을)꺼나(O)'
예) 함께 노래를 부를꺼나? / 봉선화의 색깔은 붉거나 희다.
- 3. 어휘**
① '부치다'와 '붙이다'
예) 편지를 부치다 / 불문에 부치다 / 일소에 부치다 / 우표를 붙이다 / 눈을 붙이다(잠깐 잠을 자다)

/ 씨를 붙이다(안켓과 수컷의 교미)
② 웃어른(O)과 윗어른(X)
③ 둘째, 셋째, 넷째, 열두째, 열세째, 열네째(O) / 두째, 세째, 네째, 열둘째, 열셋째, 열넷째(X)
4. 허용규정(둘 다 인정됨)
① '씩어'와 '쓰어'
예) 신문에 뭐라고 씌어 있나요? 신문에 뭐라고 쓰어 있나요?
② '-화하다'와 '-화되다'
예) 핵가족이 보편화했다. 핵가족이 보편화했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은 둘 다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미 중복 측면에서 보면 '-화되다'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화되다'는 말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타동사일 때는 '-화되다'를 쓸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절차를 간소화했다'를 '절차를 간소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신의 실체를 밝혔다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도서출판 해·인